사 사 기 Judges

[1] 핵심

사사기 21장을 세 단어로 요약해보자

(타락1-3장**) - (사사들의 구원**3-16장**) - (부록**17-21장**)**

[2] 배경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의 약속을 성취한 '승리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그 약속의 땅에서 신실하지 못한 '실패의 책'이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 전자가 긍정적인 계시라면 후자는 부정적이다. 전자가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고 번성했다면, 후자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후퇴한다. 전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심에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자는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 자신들의 불순종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자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을, 후자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울의 통일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약 300년에 걸친 사사들의 역사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전체의 배경이 되는 서론(1-3:6)에서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불충함을 보여주고, 본론(3:7-16장)에서는 그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12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시는 긍휼의 역사를 다룬다. 부록과 같은 결론(17-21장)에서는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함으로 왕정제도가 없어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동시에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결론적으로 사사들의 부재가 아닌 왕의 부재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공함으로 사사기는 왕정제도가 시작되는 사무엘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비록 약속에 땅에 들어가서 조차도 반역을 일삼고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은혜)가 별처럼 빛나는 책이다. 반면에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복은 그들의 의무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시내산 언약의 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룩한 복임을 교훈한다.

[3] 개요

- 1:1-3:6 타락 : 가나안에 동화(1:1-2:5)와 영적 배도(2:6-3:6)
- 3:7-16장 구원(12사사)
  대사사: 옷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 17-21장 부록 : 미가와 단지파(17-18장)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운명(19-21장)

[4] 본문

1. 타락 1:1-3:6

1) 가나안에 동화(1:1-2:5)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1:28).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1장은 이스라엘 온 지파가 가나안의 완전 정복에 실패하였음을 보고한다. 그들의 부분적인 승리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지역에 사는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안주해 버렸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둘 다이다.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을 당해내는 되는 한계가 있었다. 때론 힘이 부쳤다. 그래서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강성해 진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단순히 지정학적 정복의 실패라기보다는 그들의 사명이 해이해진 불순종의 결과라고 사사기 기자는 평가한다.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삿2:2; 민33:51-53)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2:3). 그들은 서서히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어가면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죄와 불의와 타협했을 경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있다.

2) 영적배도(2:6-3:6)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2:11-12). 2장은 가나안에서 출생한 출애굽 제3세대의 영적 무지와 우상숭배를 다룬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제3세대는 영적으로 무지한 불신앙의 세대였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자행하며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3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안팍에 여전히 이방민족을 남겨 두신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방책이셨다(2:22; 3:4)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때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떠난 그릇된 모든 영적 타협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도 거룩한 소명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각성하자. 우리는 동화가 아닌 침투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세속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하고 소금의 맛과 멋을 지닌 채 세상에 침투하는 21세기 교회가 되도록 하자.

2. 구원(12 사사) 3:7-16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3:7). 가나안에 동화되어가는 징후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은 주변에 이방나라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징치하셨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구원자가 바로 사사였다(2:16-19).
사사(Judges)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군사적/ 재판/ 영적)로 세우신 사람들이다. 사사기는 12 사사들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린다. 여섯 번씩이나 반복해서 악행을 행하는 악순환의 과정(악행->고난->간구->구원->안식)을 거치면서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진정한 참회를 하지 않은 패역한 백성이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나타난 인간의 반역과 패역한 본성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야 했는지 깨닫게 된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믿음에 뿌리를 두어야함을 배우도록 하자.
12사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옷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다. 이들은 크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뉜다. 대사사는 전쟁 영웅들로 그들의 행적이 길고 상세하게 묘사된다(옷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소사사는 간략한 통치기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부이다(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제 간략히 12 사사들의 행적과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옷니엘(3:7-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3:9).
[이름. 특징. 출신. 압제자. 압제당한 햇수. 평화기간]
사사 옷니엘은 갈렙의 사위(1:11-15)로 유다지파 출신이다. 압제자는 메소포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8년간 징치한다. 이때 옷니엘이 구원하여 40년간 평화가 찾아온다.
[악순환의 패턴: 악행(sin) -> 고난(suffering) -> 간구(supplication) -> 구원(salvation) -> 안식(silence)]

2) 에훗(3:12-3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3:18a)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로 베냐민(오른손의 아들)지파 출신이다. 압제자는 모압왕 에글론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18년간 지배한다. 이때 에훗이 그들을 구원하여 80년간 평화가 찾아온다.

3) 삼갈(3:31)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3:31)

사사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4) 드보라(4-5장)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4:4-5).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지파 출신의 여선지자다. 그녀는 납달리지파 출신의 바락을 군대장관으로 임명하여 동역한다. 압제자는 가나안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왕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한다. 그때 드보라와 바락이 출전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킨다. 특별히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그들의 승전가다. 세 여인의 대조를 통한 승전가는 매우 아름답다.

5) 기드온(6-8장)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6:14).
사사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300용사와 동역한다. 압제자는 미디안 왕들로 악한 이스라엘을 7년간 지배한다. 기드온은 미디안왕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40년간 평화를 누린다.

하지만 9장은 기드온(여룹바알: 바알이 변호하리)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되어 3년간 패역한 정치를 자행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악한 영(9:23)으로 결국 데베스 전투에서 살해된다. 이는 “여룹바알(기드온의 옛이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9:57)는 성취구절로 끝을 맺지만, 실상은 기드온이 만든 금에봇이 왕권에 대한 그의 숨은 동기를 드러낸 범죄행위였다고 사사기 기자는 평가한다(8:27). 결국 아버지 기드온의 숨은 야심은 아들 아비멜렉(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의 이름에서 드러나고, 더 나아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추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6) 돌라(10:1-2)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10:1)
10장은 세명의 사사들이 등장한다. 먼저 사사 돌라는 잇사갈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다. 그가 일어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23년간 통치하다가 죽었다는 기록뿐이다.

7) 야일(10:3-5)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10:3).
사사 야일은 30명의 아들과 30성읍을 지닌 길르앗의 출신이다. 그가 22년간 사사로 통치하다가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다는 기록뿐이다.

8) 입다(10:6-12:7)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11:1).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 출신으로 천대를 받고 자란 길르앗 출신이다. 그때 압제자는 압몬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18년간 지배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입다가 이스라엘을 압몬으로부터 구출하지만 그의 성급한 서원으로 무남독녀의 딸을 잃고 만다. 그가 6년간 사사로 통치한 시기에 나라는 평온하였다.

9) 입산(12:8-10)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12:8).
사사 입산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둔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가 7년간 사사로 지내다가 베들레헴에 묻혔다.

10) 엘론(12:11-12)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12:11).
사사 엘론은 스불론 지파 사람으로 십년동안 사사로 지내다가 죽어 아얄론에 묻혔다.

11) 압돈(12:13-15)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12:13).
사사 압돈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둔 에브라임(비라돈) 출신이다. 그는 8년간 사사생활을 하다가 에브라임 산지 비라돈에 묻혔다.

12) 삼손(13-16장)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13:5).
사사 삼손은 나실인으로 단지파 출신이다. 그때 압제자는 블레셋으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그의 20년간의 사사생활은 실패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본질적으로 여호와께 결박된 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정욕과 색욕에 지배되어 여인들의 포로가 되어 버렸다. 마지막 사사 삼손은 정욕에 붙들려 나실인의 신분과 사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삼손을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다. 삼손의 사랑이야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끝까지 자기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야기다!

결론: 연약한 사사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야기는, 그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지극히 작은 자인 옷니엘, 오른손의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이방인인 삼갈, 여선지자 드보라,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 자신의 명예를 위해 딸과 동족을 살해하는 입다,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여인들의 포로가 된 삼손까지 모두 불완전한 구원자(메시아)를 사용하시는 구원의 행위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능력이었다. 결국 이 불완전한 구원자 사사들은 장래 골고다로 오실 온전한 참 구원자 예수님을 내다보는 것이다!

또한 연약한 '사사'뿐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업적이나 회개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당한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로 주어진 자비와 은총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전 15:10)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3. 부록 17-21장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17:6).
3장에서 시작된 12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마지막 사사 삼손의 비장한 죽음과 장례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이제 17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내용이 전개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1-16장과는 별개의 내용이어서 마지막 17-21장은 사사기의 덧글인 부록으로 취급한다.
이 부록으로 쓰여진 5장의 사사기의 결론부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7-18장은 미가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이고, 19-21장은 한 레위인의 이야기와 베냐민지파의 운명을 다룬다.

이 부록을 삽입한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17:6; 18:1; 19:1; 21:25) 는 네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사사기의 저자가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사시대여서 왕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사사시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대안으로 왕정시대를 제시함으로 장차 도래할 사무엘로 연결되는 왕정시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덧붙인 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1) 미가와 단지파의 운명(17-18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17:1). 17-18장은 미가의 가족을 통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17:6)는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일러줄 사람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죄악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시한다. 그래서 불경스런 미가도 자신의 임의대로 가정 성소에 신상을 만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을 받자는 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다. 결국 오늘 미가가 주는 교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우리 시대의 문화에 도전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2) 베냐민지파의 운명(19-21장)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19:1). 19-21장은 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첩)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한 후 죽게 되자(19장), 이 일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알림으로 문제는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벌인 비극적인 전쟁이야기를 다루고 있다(20-21장). 이는 사사시대

의 이방 민족의 침략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간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도덕적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과 파괴로 이어진 것이다

[사사기의 교훈과 적용]

1.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17:6; 18:1; 19:1; 21:25)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도 왕들은 언약적 배교로 물든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만간 사무엘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삼상 8:7).
그렇다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되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무신의 시대를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무시한 패역한 행위는 결국 여호와의 왕권을 거부한 행위로 그들은 스스로 저주와 죽음을 자초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를 다스리는 내 삶의 군주(왕)는 예수 그리스도신가?

2.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동화되어 영성을 잃어버린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자.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기독교 복음의 가치와 윤리에 상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주님께 대한 주(왕)되심의 진정성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